

한중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

- 중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차리아(Chirea) 시대의 전개

2008. 5. 22.

1. 변화하는 중국과 한중 경제관계
2. 중국경제의 8대 패러다임 변화
3. 차리아(Chirea) 시대의 대응과제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유 병 규
편집위원 : 이부형, 허만율, 백흥기, 현석원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0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한중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
 - 중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치리아(Chirea) 시대의 전개

Executive Summary	i
1. 변화하는 중국과 한중 경제관계	1
2. 중국경제의 8대 패러다임 변화	2
3. 치리아(Chirea) 시대의 대응과제	25

1. 변화하는 중국과 한중 경제관계

한중 최고지도자가 다시 만날 계획이다. 또한 2008년은 중국 개혁개방 30년의 해이자 한중수교 16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그 동안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나라로 발전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수출의존도 1위, 수입의존도 1위, 해외직접투자 1위의 나라가 되었고, 한중관계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가능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9.4%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經濟大國)¹⁾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빈부격차, 부정부패, 환경악화, 자원부족 등 많은 문제점도 노출했다.

비록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관찰된다. 중국경제가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근본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이 한 단계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미래발전 양상을 감안해야 한다.

2. 중국경제의 8대 패러다임 변화

향후 중국 경제는 8가지 차원에서 이전과 다른 발전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형 성장으로) 개혁개방 이후 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은 외국인직접투자, 경제자유구역 설립 등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따른 투자주도형이었다. 그러나 2007년 들어 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11.4% 성장한 중국경제에서 소비의 기여도는 4.4%로 투자의 기여도 4.3%를 앞선 것이다. 소비규모를 나타내는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도 급격히 성장하였다. 2001년 4,300억 위안에서 2006년 7조 6,400억 위안으로 5년간 78%나 늘어났다. 이는 동기간 한국의 내수시장 성장률인 33%(343조 원→455조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국유기업주도에서 민영기업주도로) 중국 경제 비효율의 주범이던 국유기업의 비중은 줄고, 민영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 민영기업의 중국경제에 대한 기여도 또한 상승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공업생산량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32%, 28%, 26%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반면 민영기업의 비중은 43%, 48%, 51%로 계속 증가하였고 2006년을 기점으로 중국 공업생산량의 과반이상을 민영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노동우위에서 기술우위로) R&D 투자, 고급인력, 지적재산권 등 중국의 무형자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ECD (2006)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중국의 R&D 지출 총액은

1) 구매력 평가기준 GDP (purchasing power parity): \$7.043조 달러 (2007 추정치), 2008 CIA Fact Book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증가율은 세계 1위이다. 특히, R&D 지출 증가율은 미국 EU, 일본이 1991년 이후 평균 4~5%대인 반면, 중국은 17%나 되었다. 미국에서 선진 고등교육을 받는 고급 인력의 수도 세계 1위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경우 출원 건수 기준으로 특허는 2004년, 실용신안은 1995년, 디자인은 2000년에 중국이 한국을 모두 추월하였다.

(‘중국위협론’의 쇠퇴와 ‘중국견인론’의 부상) 2004년 이후 중국은 한국과 일본, 아세안에게 대규모 무역흑자를 가능하게 하는 동아시아 경제견인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중국의 대미, 대 EU 수출 확대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확대를 가능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구조 전환) 과거 5년 사이 중국 GDP 중 1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2,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부가가치도 증가하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2~2007년 사이 1차 산업 부가가치는 75% 증가한 반면, 2, 3차 산업은 1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종전 2차 산업 위주에서 3차 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며 단위 투자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3차 산업 중 IT소프트웨어 서비스, 도소매업, 금융업('06년)에 대한 FDI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

(수동적 에너지 정책에서 능동적 에너지 정책으로) 최근 중국은 지속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던 에너지 자원 부족과 환경오염에 대해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자원 사용 효율제고와 재생 에너지 비중 향상 방안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건설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아프리카 33개국에 채무탕감과 3년 간 30억 달러의 우대차관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원유 확보량을 230억 배럴로 확대하여 에너지 자체 조달 비율을 14%까지 끌어 올렸다.

(계획경제형 은행시스템에서 시장경제형 은행시스템으로) 중국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통해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3~2007년 사이 국제결제은행의 규제기준인 자기자본비율 8% 수준에 도달한 중국 은행의 수는 8개에서 136개로 급증하였다. 건설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교통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IPC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국유은행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주식제 민영은행과 도시 상업은행의 비중은 증가하는 시장경제형 구조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간접금융 위주에서 직접금융 위주로) 중국 금융시장이 국유은행을 매개로 하는 간접금융 위주에서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을 매개로 하는 직접금융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2005년부터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현재는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주식 발행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금융 규제도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

3. 치리아(Chirea)²⁾ 시대의 대응과제

앞으로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한중 FTA 본격 추진) 첫째, 한중 FTA는 대중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중국시장에서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시장 선점효과와 함께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이다.

(한중 과학기술 협력 강화) 둘째, 중국의 우수한 기초 과학기술과 우리나라의 IT, 응용기술을 융합하는 '한중 과학기술 연대'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수소와 핵폭탄, 인공위성을 개발할 정도로 **탄탄한 기초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응용기술과 결합될 수 있는 훌륭한 협력 파트너**이다.

(한중 금융협력 기반 구축) 셋째,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역내 경제·금융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최근 상황에서 양국간 금융협력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 중앙은행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내 금융인프라 구축 등 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인적교류 확대) 넷째,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출입국 등의 각종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 교육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이수를 상호 인정하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행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교류 확대를 위해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자기간 연장 등, 양국 상호간 최혜국 수준에 준하는 인적교류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문제 공동 대응체제 확립) 다섯째,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유발된 환경 문제는 중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막화로 인한 황사, 서해 해양오염, 산성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 절실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 **현재 운영중인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와 환경장관 회의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한중 환경문제 공동연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 노력 확대) 여섯째, 에너지 자원 확보는 양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에너지 개발부터 소비까지 외교적 단일체로 움직일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원 확보를 위한 **공동 펀드를 조성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를 취해 자원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경제 체제 구축) 일곱째, 가치 '한중일 공동개발은행' 등을 설립하여 동북아 개발을 촉진시키고, 북한 핵문제 공동대처 등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중일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 위원회 '등의 구성을 검토해 볼만 하다.

2) Chirea는 China와 Korea를 합성한 신조어로 한중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음을 의미함

한중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

-중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차리아(Chirea)시대의 전개

1. 변화하는 중국과 한중 경제관계

- 2008년은 중국 개혁개방 30년의 해이자 중국 수교 16주년의 해로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음
 -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수출의존도 1위, 수입의존도 1위, 해외직접투자 1위의 나라로 이미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음
 - 한중관계는 1992. 8. 24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관계를 지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되었음
-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관찰됨
 - 중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9.4%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經濟大國)³⁾으로 발돋움
 - 반면 성장과정에서 빈부격차, 도농격차, 부정부패, 환경악화, 자원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경제약국(經濟弱國)으로도 평가됨
 - 그러나, 중국경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제의 근본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한중의 경제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미래는 곧 한국경제의 미래이며, 중국의 변화를 설명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은 필수임
 - 중국의 변화속도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40년을 압축한 속도에 못지않으나,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정보량과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음
 -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리해보고 유의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3) 구매력 평가기준 GDP (purchasing power parity): \$7.043조 달러 (2007 추정치), 2008 CIA Fact Book.

2. 중국경제의 8대 패러다임 변화

① 투자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형 성장으로

- (수요별 경제성장 기여도) '90년대 중반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은 대략 5년 주기로 투자주도형과 소비주도형이 반복되었는데,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투자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형 성장으로 이동
-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중국의 경제성장은 경제자유구역 설립 등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에 따른 투자가 견인하는 투자주도형 성장이었음
-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성장의 원천으로 투자와 소비가 교대하는 현상이 뚜렷해져 1996~2000년은 소비가, 2001~2006년은 투자가 성장을 주도
- 2007년 11.4% 성장한 중국경제에서 소비의 기여도는 4.4%p로 투자의 기여도 4.3%p를 앞서면서, 2000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경제성장 원천으로 부상

< 수요별 경제성장 기여도 (2001~2007) >

(단위: %)

	GDP		소비		투자		(純)수출	
	성장률 (%)	비중	기여도 (%p)	비중 (%)	기여도 (%p)	비중 (%)	기여도 (%p)	비중 (%)
1996	10.0	100	6.0	60.1	3.4	34.3	0.6	5.6
1997	9.2	100	3.4	37.0	-0.7	-7.4	6.5	70.4
1998	7.8	100	4.4	57.1	2.3	29.3	1.1	13.6
1999	7.6	100	5.8	76.8	4.0	52.8	-2.2	-29.6
2000	8.4	100	5.4	63.8	1.8	21.7	1.2	14.4
2001	8.3	100	4.15	50.0	4.16	50.1	-0.01	-0.1
2002	9.1	100	3.97	43.6	4.44	48.8	0.69	7.6
2003	10.0	100	3.53	35.3	6.37	63.7	0.10	1.0
2004	10.1	100	3.91	38.7	5.59	55.3	0.61	6.0
2005	10.4	100	3.97	38.2	3.92	37.7	2.51	24.1
2006	11.1	100	4.32	38.9	4.52	40.7	2.26	20.4
2007	11.4	100	4.40	38.6	4.30	37.7	2.70	23.7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2007), 2007년 기여도와 비중은 추정치.

주: 해당항목 기여도(%p) = 각년도 GDP 성장률(%) × 각년도 항목별 비중(%).

- (내수시장과 구매력) 2001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내수시장 성장률, 4%대의 안정적인 실업률, 도시근로자 임금의 지속적 상승 등 중국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구매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2001년 4조 3,000억 위안에서 2006년 7조 6,400억 위안으로 5년간 78% 성장
⇒ 동기간 한국의 내수시장은 343조 원에서 455조 원으로 33% 성장⁴⁾
- 동기간 중국 내수시장 연평균 증가율은 11.8%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9.8%를 약 2%p 상회하여 경제성장 속도보다 내수시장 증가 속도가 더 빨랐음
- 동기간 실업률이 4%대로 안정되었고, 도시 근로자 1인당 소득도 2003년 8,472위안(116만 원)에서 2007년 13,786위안(186만 원)으로 63%나 상승

< 중국 내수시장 규모와 증가율 추세 (2001~2006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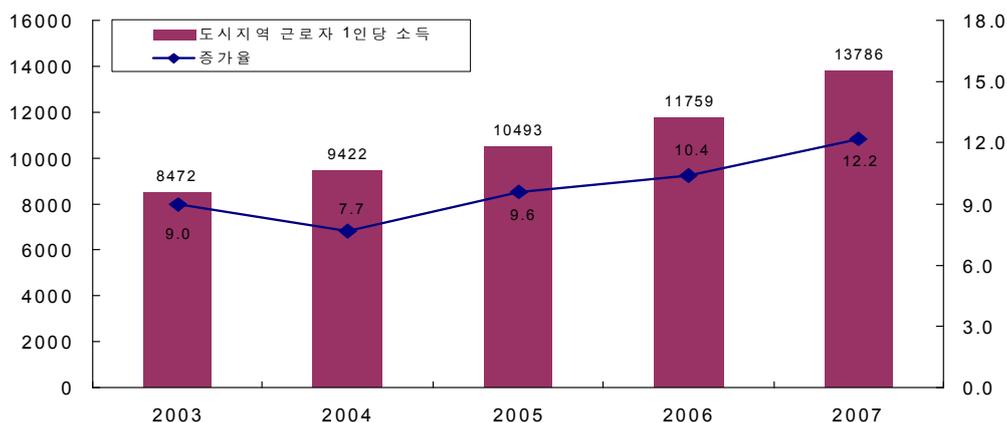
(단위: 천억 위안,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시장규모	43.0	48.1	52.5	59.5	67.2	76.4
증가율	10.1	11.8	9.1	13.3	12.9	13.7
경제성장률	8.3	9.1	10.0	10.1	10.4	11.1
실업률 ⁵⁾	3.6	4.0	4.3	4.2	4.2	4.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 도시 근로자 1인당 소득변화 추이 >

(단위: 위안,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07 통계공보」.

4)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민간최중소비지출 기준.

5) CIA, 『The World Fact Book』가 발표한 중국의 실업률은 10%('01), 10%('02), 10.1%('03), 9.8%('04), 9.0%('05), 4.2%('06) 4.0%('07)로서 중국이 발표한 실업율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② 국유기업주도에서 민영기업주도로

- (개요) 1992년 중국공산당 14기 전당대회에서 공유제(公有制)의 보완수단으로 민영기업⁶⁾과 외자기업을 인정한 이후, 국유기업은 급속히 쇠퇴하고 민영기업은 크게 번성
 - 1988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사영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
 - 2004년 전인대(의회)의 제4차 헌법 개정으로 '공민은 합법적 사유재산을 침해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후 민영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

- (생산량) 중국 경제 비효율의 주범이던 국유기업의 비중은 줄고, 민영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민영기업이 중국경제의 후보에서 주전으로 등장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공업생산량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32%, 28%, 26%로 꾸준히 하락
 - 동기간 국유기업의 다른 형태인 집체기업의 비중도 4%, 3%, 2%로 하락
 - 반면, 동기간 민영기업의 비중은 43%, 48%, 51%로 계속 증가하였고, 2006년을 기점으로 중국 공업생산량의 과반이상을 민영기업이 담당

< 경제주체별 공업생산량과 비율 추세 (2004~2006) >

(단위: 억 위안, %)

	2004		2005		2006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생산량	비율
국유기업	23,213	32	26,063	28	28,396	26
집체기업	2,877	4	2,581	3	2,558	2
민영기업	32,344	43	43,980	48	55,465	51
외자기업	15,241	21	18,977	21	22,502	21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통계공보 각년호.

주 : 민영기업은 사영기업과 주식제회사(share-holding enterprises)의 합으로 계산함.

6) 중국 민영기업은 크게 사영기업과 껌티후(個體戶)로 나뉘는데, 직원 8명 이상의 개인기업은 사영기업으로, 7명 이하 기업은 껌티후로 분류됨.

- (고용)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영경제는 중국경제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상하여 민영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도 계속 증가
 - 민영기업의 부상: 2004년 '중국 최우수 500대 기업' 중 159개가 민영기업 이었고, 2004년 '10대 기업인' 후보 17명 중 12명이 민영기업 총수
 - 취업인구: 2005~2007년 동안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취업 인구수는 각각 3%, 15% 감소한 반면, 민영기업 (외자기업 포함)의 취업 인구수는 27% 증가

< 경제주체별 취업 인원수 변화 추세 (2005~2007) >

(단위: 천명)

	2005 3분기		2006 3분기		2007 3분기	
	취업인원수	전년대비	취업인원수	전년대비	취업인원수	전년대비
국유기업	66,630	-1,588	65,278	-1,353	64,706	-572
집체기업	8,633	-1,003	7,924	-709	7,508	-415
기타기업 (민영/외자 등)	35,764	4,175	41,744	5,980	45,370	3,626
전체	111,027	1,584	114,945	+3,918	117,584	+2,638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중국 통계국은 2005년 기준 중국 도시지역의 취업인원을 2억 7,33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본 표는 중국 통계국이 실측한 발표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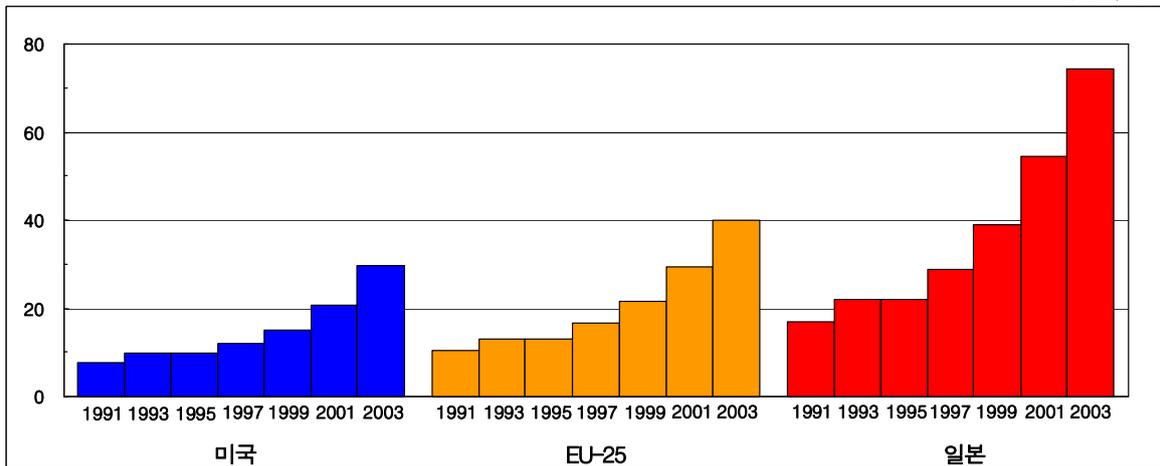
- (국유기업 정상화와 글로벌화) 민영기업은 국유기업 부실화와 비효율의 대안인 동시에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
 - 국유기업 부실의 대안: 하이얼, TCL 등 가전업체, 광둥성의 선전항공 등은 부실 국유기업을 민영기업이 인수해 정상화시킨 사례이며, 민영기업인 창청석유는 중국석유, 중국석유화학, 중국해양석유 등 국유기업의 독점카르텔을 혁파한 사례
 - 민영기업 영역의 확대: 민영기업의 사업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최근 철도, 전력, 전신, 은행, 군수에 까지 민영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쪽으로 선회
 - 글로벌화를 주도: IBM PC를 인수한 렐상, 미국 퍼시픽 시스템컨트롤을 매입한 화리그룹, 세계적 자동차 부품회사 완샹 등은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민영기업

③ 노동우위에서 기술우위로

- R&D 지출 확대, 교육을 통한 고급인력 양산, 지적재산권 확보 등 중국의 무형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원천도 저임노동력에서 중·선진국형 기술우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 (R&D 투자) OECD(2006)에 의하면 중국의 R&D 지출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증가 속도는 세계 1위임

< 중국 R&D 지출의 주요국 대비 변화 추이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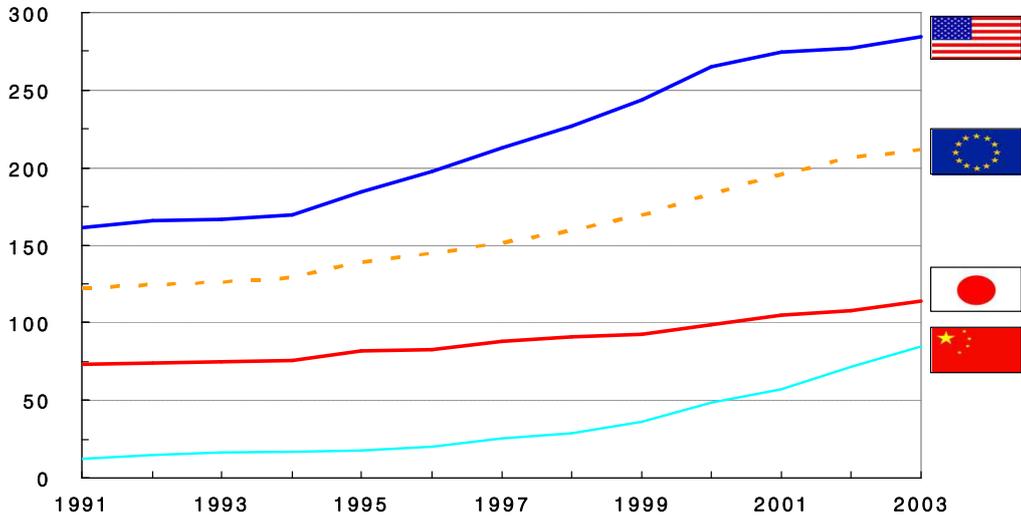
자료 : National Science Board,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6.

주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각년호에 의거 계산됨.

- 중국의 R&D 지출은 1991년 124억 달러에서 2003년 846억 달러로 수직상승하여 독일을 제치고,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
- R&D 지출 증가율은 미국, EU, 일본이 1991년 이후 평균 4~5%대인 반면, 중국은 17%였고, 특히 1999~2003년의 5년 동안은 24% 증가
- GDP대비 R&D 지출의 비중도 0.6%에서 1.3%로 상승하여 EU-15국 1.8% 및 미국 2.6%와의 격차를 좁힘
- 2003년 중국의 R&D 지출은 일본의 74%, EU의 40%, 미국의 30% 수준이나 빠른 성장률을 고려할 때 10년 내 EU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주요국의 R&D 지출액 변화 추이 >

(단위: 십억 USD)



자료 : National Science Board,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6.

주1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각년호에 의거 계산됨.

주2 : EU 자료는 EU-25개국을 대상으로 함.

- (고급인력)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1980년 394만 명에서 2000년 2,037만 명으로 전체인원과 증가율에서 압도적 1위
-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중국 유학생 구성비는 1980년대 5.4%에서 2000년 10.7%로 두 배 증가.
- 동기간 두 배로 증가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뿐이며, 한국은 1.7%에서 2.3%로 소폭 증가
-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유학생을 배출하는 나라이며, 해귀파(海歸派)⁷⁾들은 중국을 정치, 경제, 과학 등 다방면에서 선도
- 또한 중국은 상하이 CEIBS⁸⁾와 같은 아시아 1위의 MBA 스쿨을 만들어냈고, 중국내 대학원 학생 수도 급증⁹⁾하는 등 글로벌 고급인력을 대규모로 양산

7) 유학파의 중국식 표현.

8) CEIBS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세계 100대 MBA 스쿨'에서 53위를 차지하여 아시아 MBA 스쿨 중 1위임. 아시아에서는 CEIBS와 홍콩 과기대(69위)만 100위권에 속함.

9)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대학원 학생수는 2000년 30만 명에서 2005년 98만 명으로 5년 사이에 3배가 증가.

< 미국 고등 교육기간 학생의 국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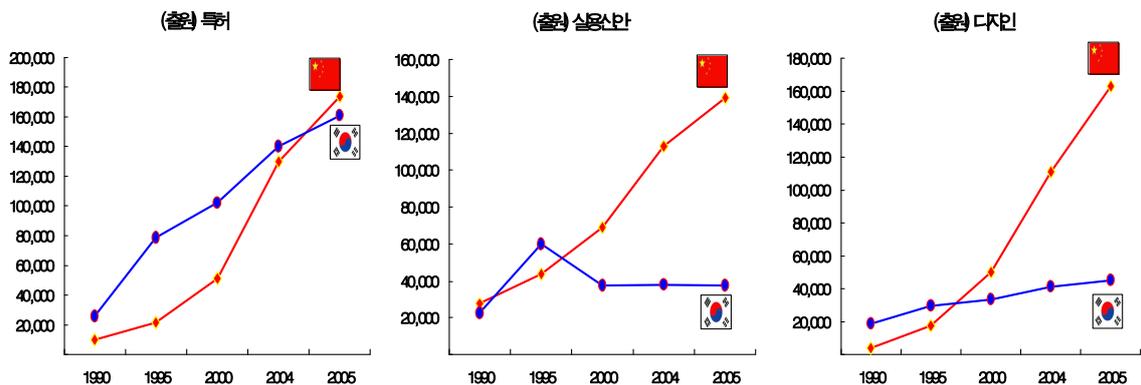
1980

자료 : National Science Board,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6.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고, 기술력의 상징인 특허 등록수도 조만간 추월이 예상됨
- 출원 건수 기준으로 특허는 2004년, 실용신안은 1995년경, 디자인은 2000년경에 중국이 한국을 모두 추월함

< 한·중 지적재산권 변화 추이(출원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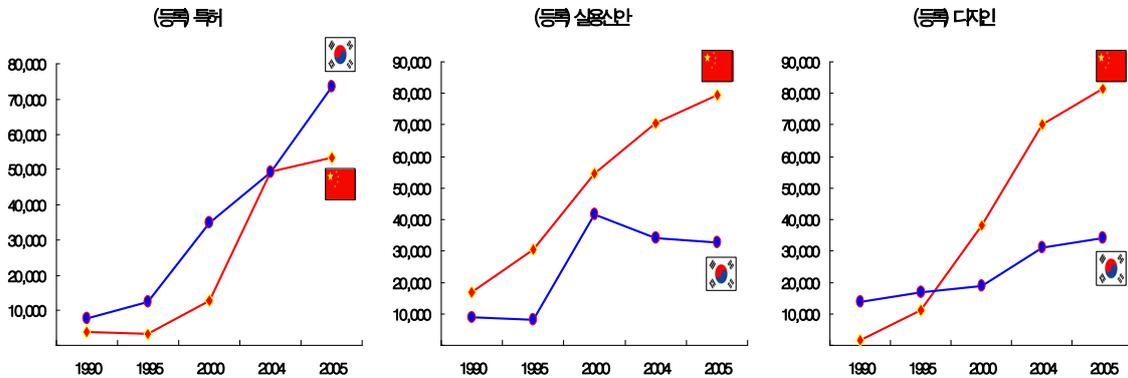
(단위: 건수)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한국 특허청.

< 한·중 지적재산권 변화 추이(등록기준) >

(단위: 건수)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한국 특허청.

- 등록 건수 기준으로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고, 특허에서만 한국이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이런 추세라면 향후 5~10년 내에 중국의 지적재산권이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④ '중국위협론'의 쇠퇴와 '중국견인론'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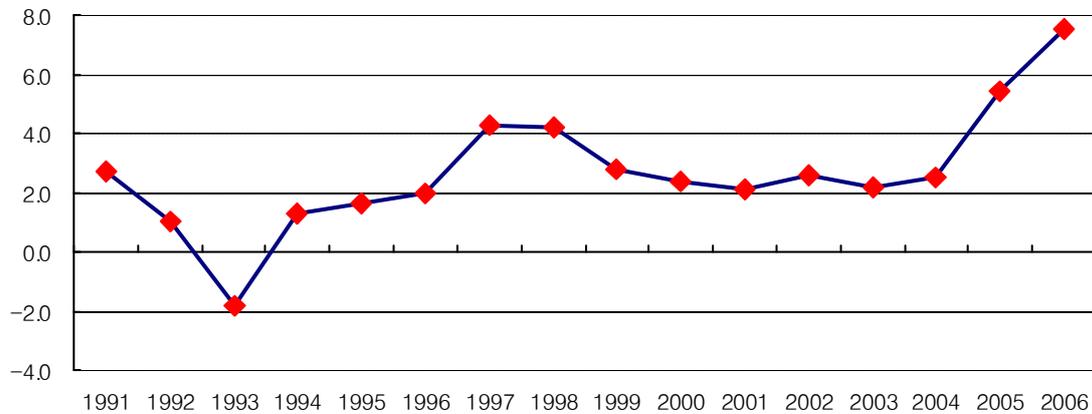
- 2004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위협의 대상에서 경제발전을 이끌어주는 경제공동체의 중심이자 21세기 새로운 안행(雁行)모델¹⁰⁾의 선두로 부상
 - 2000년 초반까지 중국의 경제발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및 아시아 국가의 시장을 잠식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협한다는 '중국위협론'이 대세
 -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은 한국과 일본, 아세안에 중국이 잠식하는 글로벌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제공한다는 '중국견인론'이 우세
 - 2004년을 기점으로 아시아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모델인 안행(기러기떼의 이동)모델의 선두 기러기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

10) 199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 경제발전의 안행모델은 일본→한국→아세안→중국→베트남 순으로 기술과 산업이 순차적으로 이전하면서 발전하는 형태를 보임.

- 반면에 미국과 EU에서는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증가일로에 있는 중국의 외교력과 국방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위협론'이 여전히 강세
- (중국의 對 주요국 무역수지) 2004년 이후 중국은 한국과 일본, 아세안에게 대규모 무역흑자를 가능하게 하는 동아시아 경제전인국

< 중국의 GDP대비 무역흑자 추이 >

(단위: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의 최근 동향』, 2007, 재인용.

- GDP대비 2~3%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중국의 무역흑자가 2004년을 기점으로 2.5%(2004), 5.4%(2005), 7.5%(2006)로 급증
- 중국의 급격한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對한국, 對일본 무역적자는 확대되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확대를 가능케 함

< 중국의 對주요국 무역수지 추이 >

(단위: 억 USD)

연도	EU	미국	홍콩	아세안	일본	한국	아세안+2
2003	191	586	652	-164	-148	-230	-378
2004	371	802	891	-201	-209	-344	-553
2005	701	1142	1123	-196	-165	-417	-582
2006	917	1443	1446	-182	-241	-453	-694
2007	1342	1633	1716	-142	-319	-477	-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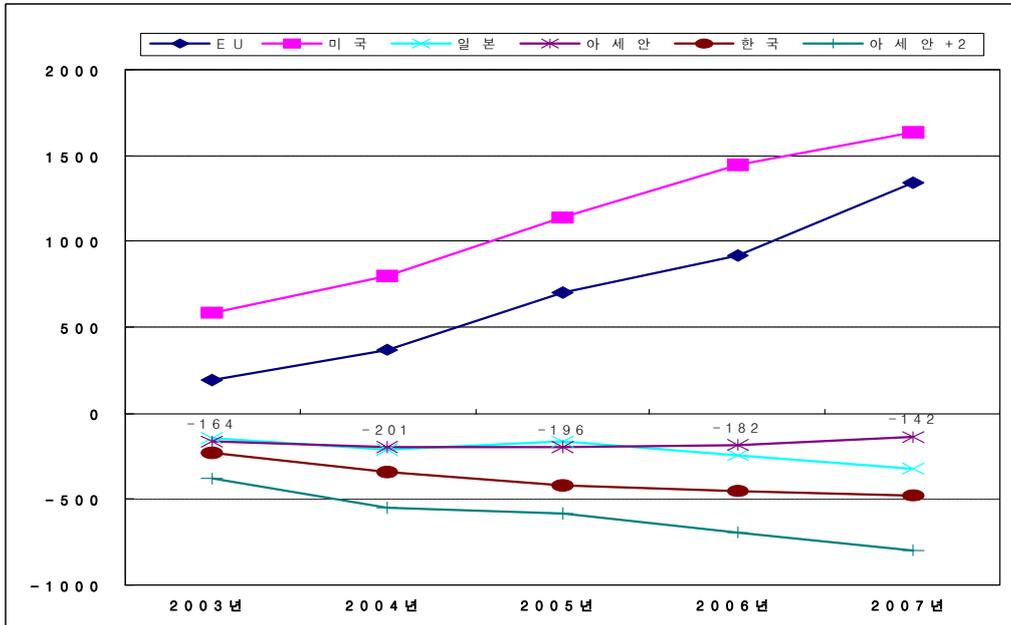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통계공보」 각년호.

주 1. 홍콩의 대 중국 무역액이 큰 것은 중개무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주 2. 아세안+2는 아세안과 한국, 일본의 합.

< 중국의 對주요국 무역수지 추이 도식화 >

(단위: 억 USD)



- 단, 2004년 이후 對 아세안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에서 생산·수입되던 중간재를 중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때문
- 한국의 對중국, 對미국 무역수지를 비교해 보면 수출은 2003년을 기점으로, 수입은 2004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교역국이 되었고,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對중국, 對미국 무역수지 추이 >

(단위: 백만 USD)

연도	수출				수입			
	미국		중국		미국		중국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37,611	27.6	18,455	34.9	29,242	17.3	12,799	44.3
2001	31,211	-17.0	18,190	-1.4	22,376	-23.5	13,303	3.9
2002	32,780	5.0	23,754	30.6	23,009	2.8	17,400	30.8
2003	34,219	4.4	35,110	47.8	24,814	7.8	21,909	25.9
2004	42,849	25.2	49,763	41.7	28,783	16	29,585	35.0
2005	41,343	-3.5	61,915	24.4	30,586	6.3	38,648	30.6
2006	43,184	4.5	69,459	12.2	33,654	10	48,557	25.6
2007	45,766	6.0	81,985	18.0	37,219	10.6	63,028	29.8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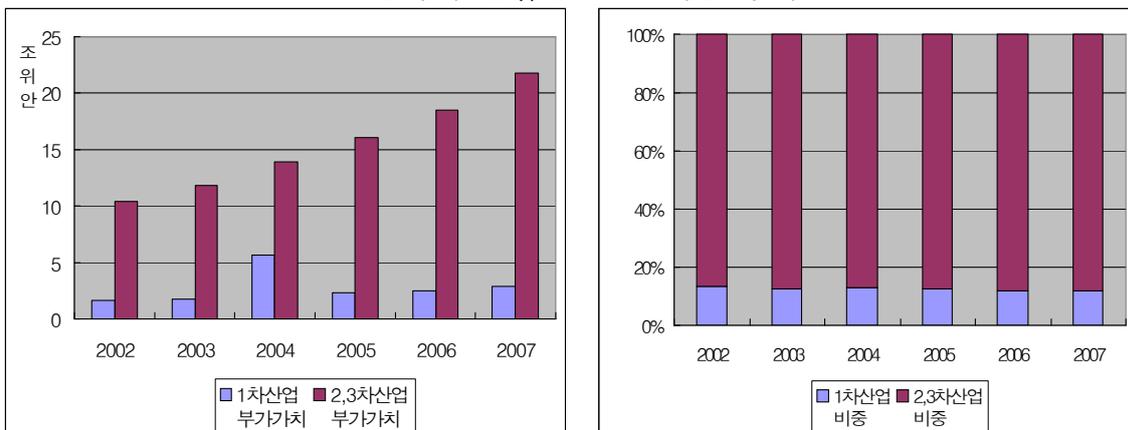
- 이러한 중국의 무역구조로 중국은 아시아 경제를 견인하는 견인차가 되었으며,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은 경쟁해야 할 상대가 아닌 공존을 위해 협력해야 할 상대가 됨
- 중국은 무역흑자 조절을 통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해소, 미국과 EU 견제, 동아시아 패권확보 등의 이유로 아시아 경제견인국 역할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됨

⑤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구조 전환

- (개요) 과거 5년 사이 중국 GDP 중 1차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2,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부가가치도 증가하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

- 2002~2007년 사이 1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75% 증가한 반면, 2,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110%의 증가율을 보임
- GDP 중 1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3.5%에서 11.7%로 하락한 반면, 2,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86.5%에서 88.3%로 증가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1, 2, 3차 산업의 비중은 5 : 30 : 65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될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

< 중국의 산업별 GDP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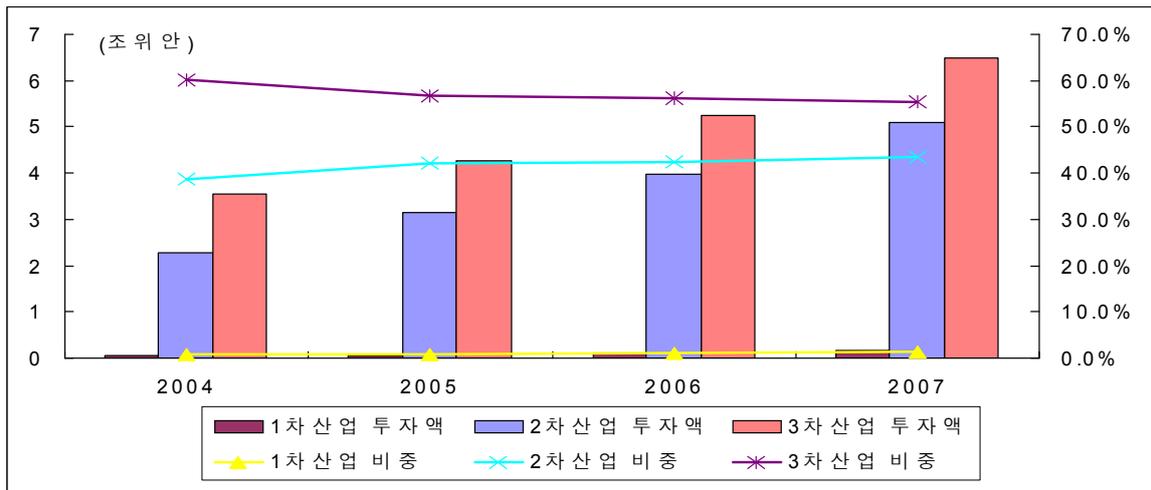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각호.

- (고정자산 투자) 최근 중국의 산업별 고정자산 투자는 2, 3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함

- 2007년 말 현재 2, 3차 산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는 2004년에 비해 각각 2.9조 위안, 2.8조 위안 증가한 반면,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0.1조 위안 증가
- 동 기간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8%에서 1.2%로, 2차 산업은 38.7%에서 43.5%로 증가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은 60.2%에서 55.3%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함
- 2차 산업의 경우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투자 중심이 변화되었으며, 3차 산업의 경우는 도시 공공기반 시설과 주민서비스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산업별 고정투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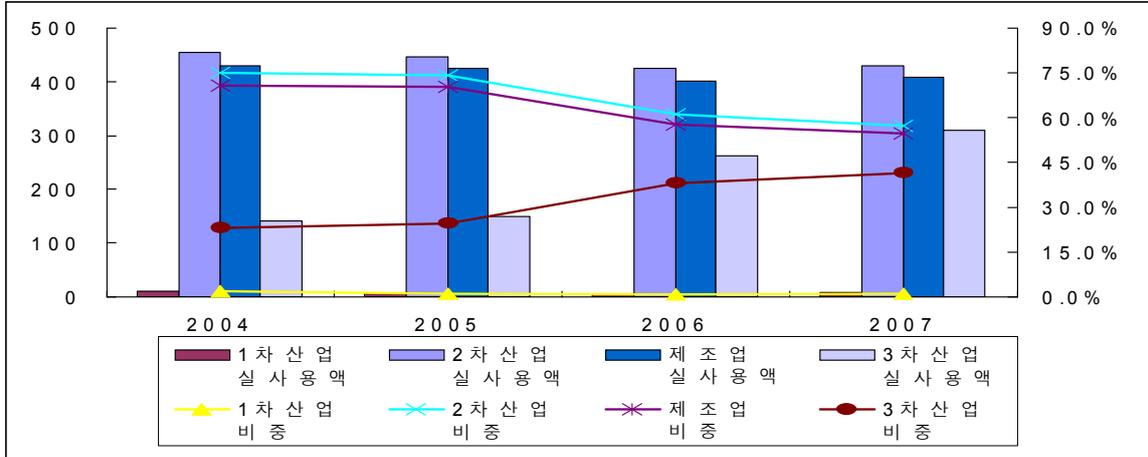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통계연감」 각호.

- (외국인 직접투자) FDI는 종전 2차 산업(제조업) 위주의 투자에서 3차 산업(서비스) 위주의 투자로 전환되고 있으며 단위 투자규모는 대형화되고 있음

- 2004~2007년 사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대한 FDI 비중은 각각 0.6%와 18% 감소한 반면, 3차 산업에 대한 FDI 비중은 18% 정도 증가
- 특히 3차 산업 중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도소매업, 금융업에 대한 FDI 비중 확대가 두드러짐

<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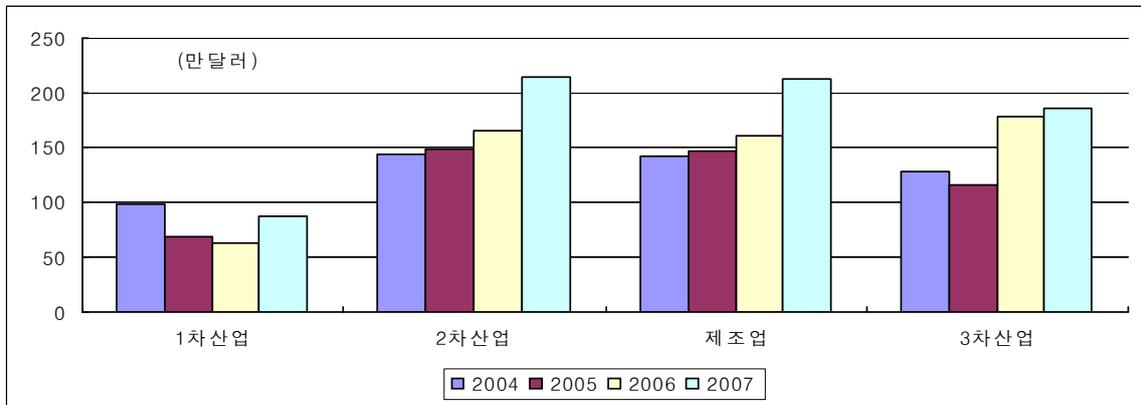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 중국 상무부 국별통계(國別統計) 중 '외자이용' 부분.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FDI 투자 건수는 감소한 반면, 실사용액은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FDI의 대형화가 진행 중임

< FDI 투자 건당 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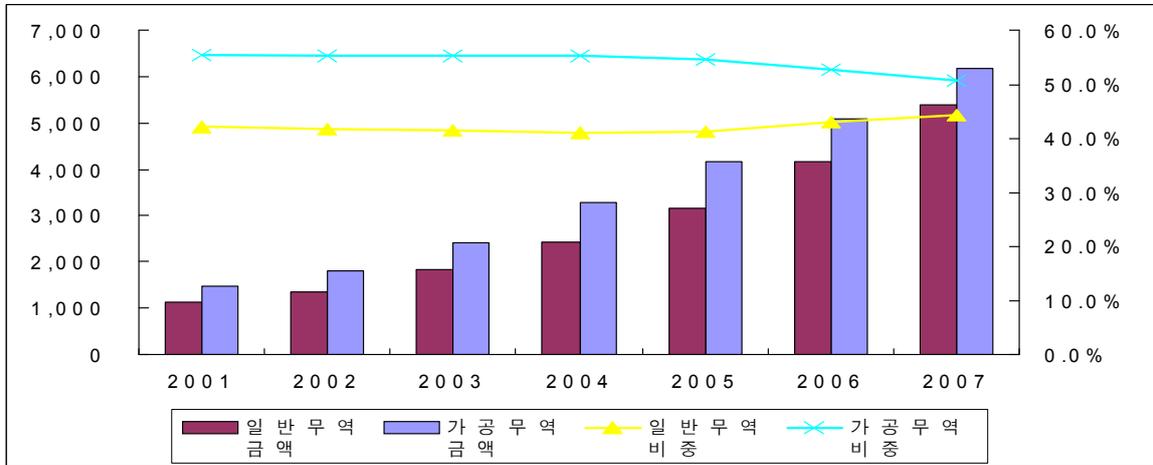
자료 : 중국 상무부 국별통계(國別統計) 중 '외자이용' 부분.

- (교역방식) 중국의 무역 형태에 있어 가공무역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일반무역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01~2007년 사이 중국의 전체 교역 규모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7% 감소하였으며 일반무역의 비중은 2.2% 증가하였음

< 중국의 교역 형태별 규모와 비중 추이 >

(단위: 억 달러)



자료 : 중국 상무부 국별통계 중 '중국편'.

- (수출 상품의 구성) 중국의 수출 상품 구성에서 초급제품¹¹⁾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공업제품¹²⁾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2~2007년 사이 중국의 초급제품 수출은 329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공업제품의 수출은 8,594억 달러 증가하였음
- 동일 기간 동안 초급제품의 수출 비중은 8.8%에서 5.1%로 감소한 반면, 공업제품 수출 비중은 91.2%에서 94.9%로 증가하였음

< 중국의 상품별 수출액 추이 >

(단위: 억 달러)

연도	총액	초급제품						공업제품					
		합계	식품, 동물	음료, 담배	원료	광물, 연료	동식물 지방	합계	화학제품	방직, 고무, 야금	기계, 운송설비	잡화	미분류
2002	3255.96	285.4	146.21	9.84	44.02	84.35	0.98	2970.56	153.25	529.55	1269.76	1011.53	6.48
2003	4382.28	348.12	175.31	10.19	50.32	111.14	1.15	4034.16	195.81	690.18	1877.73	1260.88	9.56
2004	5933.26	405.49	188.64	12.14	58.432	144.8	1.48	5527.77	263.6	1006.46	2682.6	1563.98	11.12
2005	7619.53	490.37	224.8	11.83	74.84	176.22	2.68	7129.16	357.72	1291.21	3522.34	1941.83	16.06
2006	9690.7	529.3	257.2	11.9	78.6	177.8	3.7	9161.5	445.3	1748.4	4563.6	2830.3	23.9
2007	12180.1	615.5	307.5	14	91.5	199.4	3	11564.7	603.6	2198.9	5771.9	2968.5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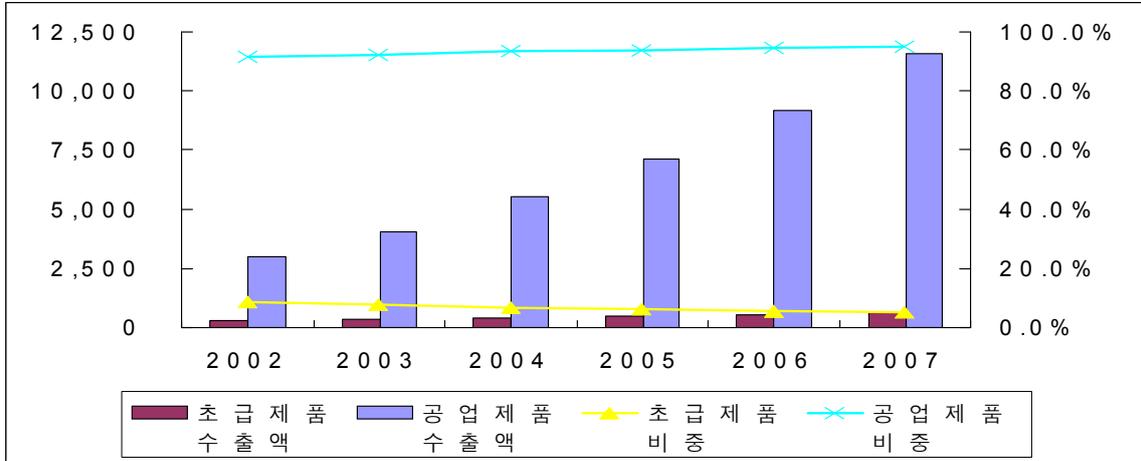
자료 : 중국 상무부.

11) 초급제품은 식품·동물, 음료·담배, 원료, 광물연료 및 동식물 지방 등으로 구성.

12) 공업제품은 화학업 제품, 경방직·고무·야금, 기계·운송장비, 잡화 등으로 구성.

< 중국의 상품별 수출액 및 비중 추이 >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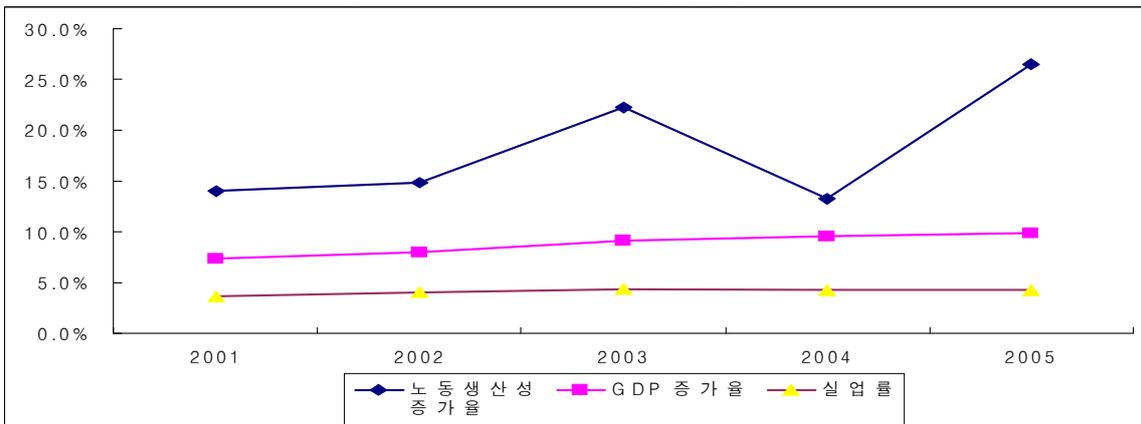


자료 : 중국 상무부.

- (노동생산성) 중국 도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음

- 2001년~2005년 사이 중국 도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여 '05년에는 10만 4,680 위안(USD 1만 3,957 달러)/년·인에 도달
- 2006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은 6만 3,855달러와 5만 4,609달러로 중국의 4~5배 수준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연간 3% 미만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일반적이므로 중국과의 격차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중국 도시 근로자 노동생산성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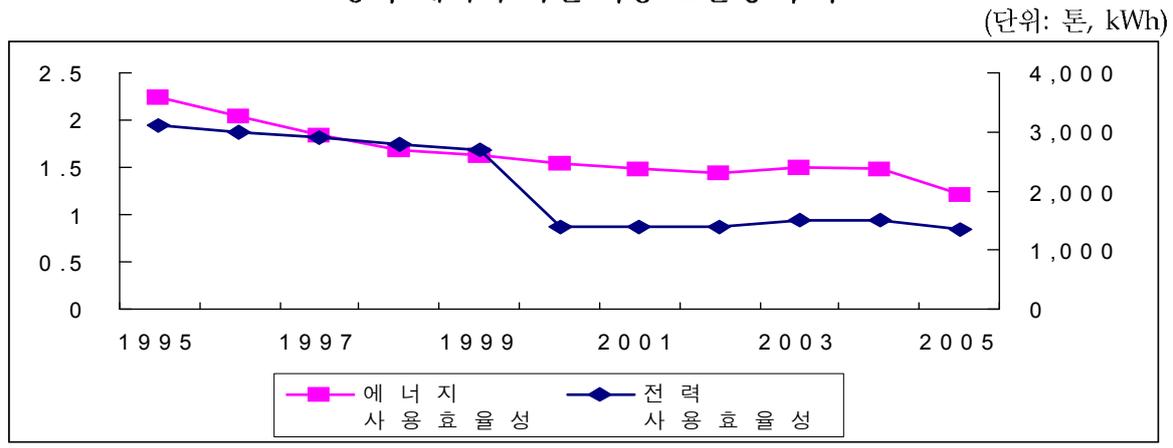


자료 : 중국 「통계연감」, 각호 '노동' 부분.

⑥ 수동적 에너지 정책에서 능동적 에너지 정책으로

- (개요) 중국은 지속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던 에너지 자원 부족과 환경오염에 대해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적극적 대응으로 전환
- 중국은 '11.5계획(2006~2010년)'에서 에너지 자원 및 환경 전략을 경제 발전에 우선하는 선결과제로 채택하고, 2010년까지 에너지 자원 사용 효율을 20% 제고할 계획임
- 중국 국무원은 2010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천연가스와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각각 5.3%와 8.1%로 올리고 2020년경에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15%까지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설정

< 중국 에너지 자원 사용 효율성 추이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각호.
 주 : (좌측) GDP 1만 위안 당 소요되는 표준탄의 톤수; (우측) GDP 1만 위안 당 소요되는 kWh.

< 중국 에너지 소비 구조 추이와 전망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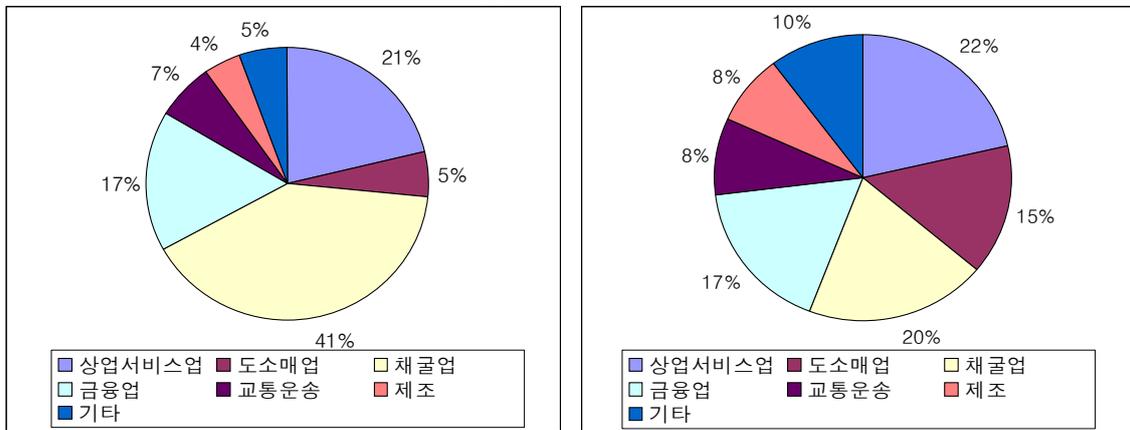
연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¹³⁾
2002	66.3	23.4	2.6	7.7
2003	68.4	22.2	2.6	6.8
2004	68.0	22.3	2.6	7.1
2005	68.9	21.0	2.9	7.2
2007	67.0	23.0	3.0	7.0
2010	66.1	20.5	5.3	8.1

자료 :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 자원 발전 11·5계획」.

13) 재생에너지는 수력발전, 풍력발전, 핵발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전략) 중국은 대내적으로 에너지 자원 탐사와 대체 및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매우 적극적
 - 2020년까지 중국은 에너지 부문 투자를 연평균 20% 이상씩 늘려 에너지 시장 규모를 10조 위안(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¹⁴⁾
 - 중국은 바이오 연료와 같은 석유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풍력, 수력 발전 등 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또한 진하이(鎮海), 저우산(舟山), 황다오(黃島), 다롄(大連) 등 네 곳에 전략유 비축기지를 구축하고 에너지 자원의 수송망 건설 투자를 확대
- (대외전략) 중국은 자원부국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자원외교와 투자확대를 통해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수입선 다변화로 수급 안정성을 증진
 - 중국은 200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여 에너지 자원 탐사, 개발, 운송, 유통 등 영역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격려
 - 2006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211.6억 달러)에서 에너지 자원 채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이고, 이는 2006년까지 누적 투자액(906.3억 달러)의 20%를 차지함

< 중국의 산업별 대외직접투자 비중 >



자료 : 중국 상무부,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2006.

주 : (좌측) 2006년 당해연도 대외직접투자; (우측) 2006년까지 누적합계.

- 2007년 기준으로 중국은 아프리카 33개국에 채무탕감과 3년 간 30억 달러의 우대차관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원유 확보량을 230억 배럴로 확대하였으며 에너지 자채 조달 비율을 14%까지 끌어 올림¹⁵⁾

14) IEA(국제에너지기구).

- 중국은 원유 수입량의 50%를 상회하는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및 남미국가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
-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송 안전을 위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인도와 미얀마를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들과 송유관 건설 분야에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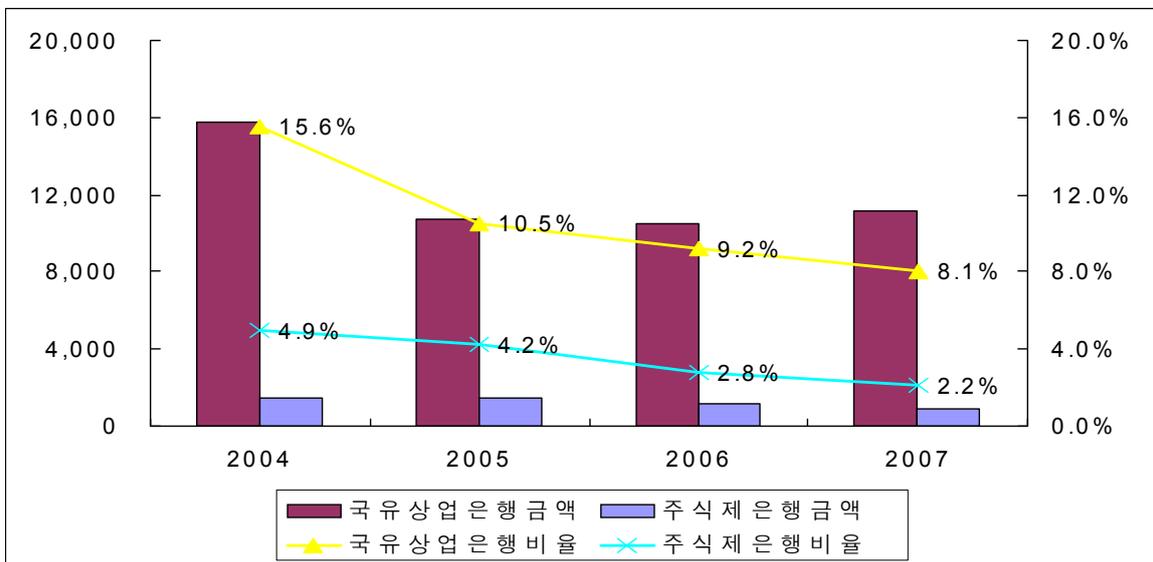
⑦ 계획경제형 은행시스템에서 시장경제형 은행시스템으로

- (개요) 중국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통해 정부와 기업 부실의 최종 부담자인 은행의 자산구조를 건전화하여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중국은 4대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주식제(주식회사 형태) 전환과 상장 과정을 통해 부실채권율을 낮추고 BIS비율을 제고시킴
- 또한 중국은 주식제 상업은행의 신규 설립과 영세 예금기관의 통합을 통해 은행 산업을 다원화함

< 주요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와 비율 추이 >

(단위 :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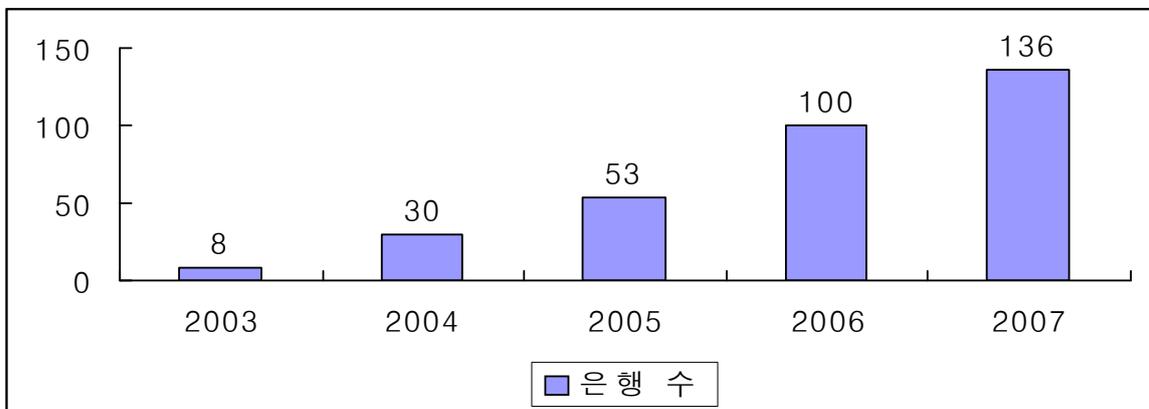
자료 :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상업은행 부실채권율」.

15) 2007년 말 현재, 한국의 해외 원유 확보량은 22억 5,000만 배럴이고 에너지 자체 조달 비율은 전체 도입량의 4.2%임.

- (부실채권비율) 2004~2007년 사이 국유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7.5%, 2.7% 씩 낮아져 선진국 은행기관의 목표 부실채권비율인 3% 미만 수준에 근접함
 - 1999년 중국은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1조 4,000억 위안 규모의 부실채권을 분리 이전
- (BIS 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규제기준인 자기자본비율 8% 수준에 도달한 중국 은행의 수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자기자본비율 8% 수준에 도달한 중국 은행기관 수는 2003~2007년 사이 8개에서 136개로 증가
 - 2004년 중국은 4대 국유상업은행에 총 450억 달러 규모의 외화자산을 출자하고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수준으로 유지시킴

< '07년 말 현재 BIS 비율 기준¹⁶⁾ 도달 은행 수 >

(단위 : 개)



자료 :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 「상업은행 BIS 비율」.

- (전략투자자 유치와 IPO) 중국 국유 상업은행들은 2004년 교통은행을 시작으로 외국계 금융기관들을 전략적 투자자로 영입함으로써 성공적 IPO를 위한 기반을 마련

16)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자기자본 비율(BIS) 8%를 표준으로 설정.

한중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

- 2004년 교통은행은 HSBC로부터 17.5억 달러의 자본투자를 받아 자본 충실을 기하는 한편, 신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함
- 그 외에 건설은행과 중국은행은 2005년에, 공상은행은 2006년에 각각 전략적 투자를 받아 IPO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주요 은행의 전략적 투자자 유치 >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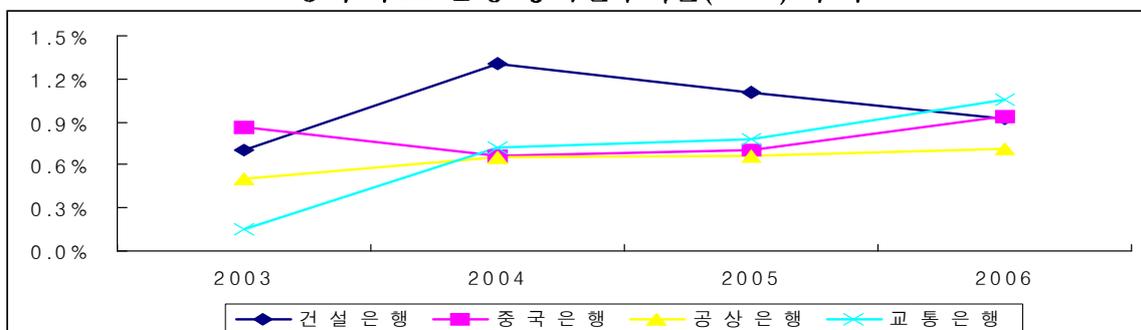
은행	전략적 투자자	투자금액	지분율	투자시기	상장시기	상장지점
교통은행	HSBC	17.5	19.9	'04. 08	'05. 06	홍콩
건설은행	Bank of america	30.0	8.5	'05. 08	'05. 10	홍콩
	Temasek	14.0	6.0	'05. 08		
중국은행	RBS Consortium	31.0	10.0	'05. 08	'06. 06	선 홍콩, 후 상해
	Temasek	31.0	10.0	'05. 08		
	UBS	5.0	1.3	'05. 09		
	ADB	0.8	0.2	'05. 10		
공상은행	Goldman Sachs	25.8	5.0	'06. 01	'06. 10	홍콩·상해 동시 상장
	American Express	2.0	0.4	'06. 01		
	Allianz Group	10.1	2.0	'06. 01		

자료 : 홍콩·상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검색자료」.

- (경영성과) 주요 은행들은 IPO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IPO 이전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함

- 2004년을 기준으로 건설은행의 성과가 4대 은행 중 월등히 높았지만, 점차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였는데, 이는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
- 그 외에 중국은행, 공상은행, 교통은행 등은 IPO 이후에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국유지분 비중이 가장 낮은 교통은행의 성과가 현저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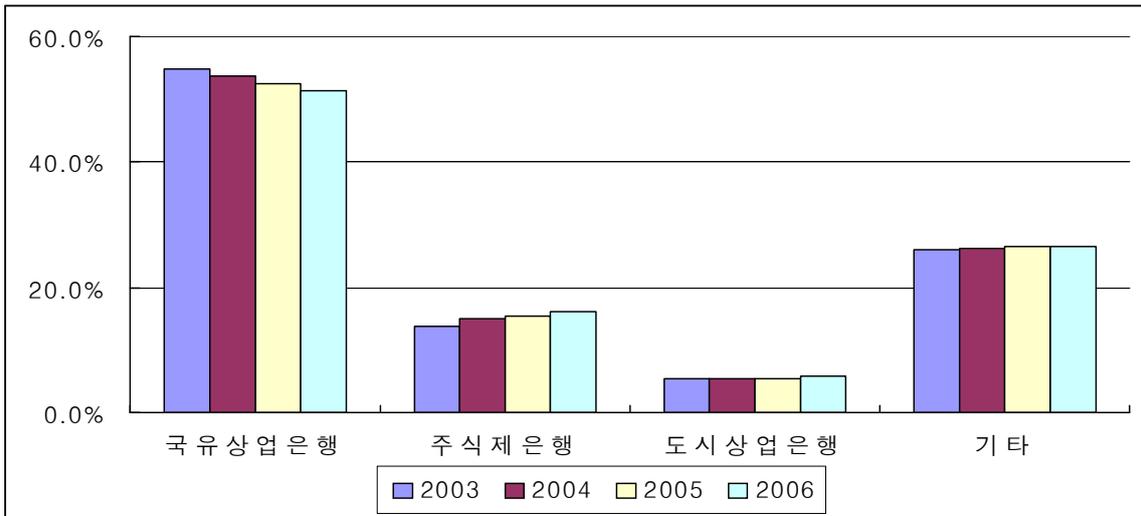
< 중국 주요 은행 총자산수익률(ROA) 추이 >



자료 : 각 은행 홈페이지, 「Annual Report」 각호.

- (은행 종류 다원화) 은행 시스템에 대한 개혁 조치로 은행체계 내에서 국유은행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주식제은행과 도시 상업은행의 비중은 증가
 - 2003~2006년 사이 국유상업은행의 자산 비중은 54.9%에서 51.3%로 3.6%p 감소하였으며, 주식제은행과 도시상업은행의 비중은 각각 2.4%와 0.6% 상승함

< 중국의 은행 총자산 대비 은행종류별 자산비중 추이 >



자료 :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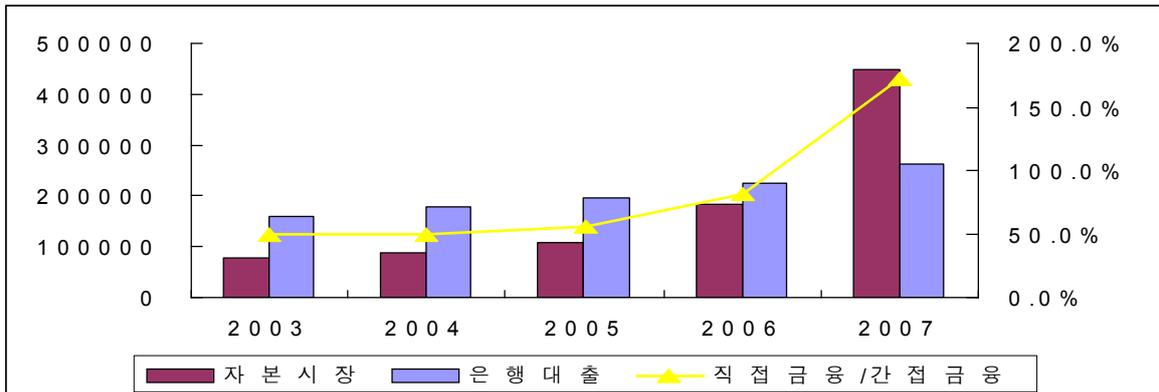
⑧ 간접금융 위주에서 직접금융 위주로

- (개요) 중국은 국유은행을 매개로 하는 간접금융 위주에서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을 매개로 하는 직접금융 위주로 전환
 - 2004년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국구조(國九條)》는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직접금융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중국 자본시장은 2001~2005년까지 침체기를 지나 2006년부터 급속히 팽창하였으며, 2007년에는 시가총액이 간접금융시장 규모를 능가하고 GDP의 2배에 달함
-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중국은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직·간접 금융의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 글로벌화를 확대
 - 2006년부터 외국계 은행의 현지법인에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인민폐 소매업무가 개방된 이래로 2007년 말 현재 총 17개 은행이 인민폐 업무를 개시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음

- 2007년 말 현재 중국에는 총 34개의 외국계 보험사가 독립법인 또는 합자형태로 진출하였고, 이중 생명보험사 19개, 손해보험사 12개, 재보험사 3개임

< 중국 직·간접 금융 추이 >

(단위 : 억 위안)



자료 : 중국인민은행, 상해·심천 증권거래소 통계자료.

주 : 직·간접 금융 비중은 자본시장 시가 총액을 은행 대출로 나눈 값임.

<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개방 현황 >

	개방일정 및 범위	현황
은행	- 2003년부터 기업을 상대로 인민폐 도매 업무 개시 - 2006년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인민폐 소매업무 개시	- 2007년 말 현재 외국계 은행의 현재법인인은 총 17개 ¹⁷⁾ 에 달함
증권사	- 2003년부터 합자 증권사 설립이 가능해 졌으나, 1/3 이상의 지분 소유는 불가 - 2005년부터 지분을 49%까지 확대 가능	- 2007년까지 외국계 합자 증권사는 총 7개임
보험사	- 2001년부터 생명보험 재보험 시장 진출 가능 - 2002년부터 비생명 보험사의 51%와 생명보험사의 50%의 지분 취득 가능 - 2004년부터 지역적 제한 폐지	- 2007년 말 현재 중국에는 총 34개의 외국계 보험사가 진출

자료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외국금융기관의 중국 진입 현황 평가와 정책적 개방 추세』.

- (자본시장 개방) 2005년 중국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현재는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주식 발행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음

17) 부록 참조

- 2005년 IFC(국제금융그룹)와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중국 채권시장에서 각각 11.3억 위안과 1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
 - 2007년 12월 개최된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2008년 내에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
- (감독체계 확립) 중국은 은행, 증권, 보험에 대해 각기 다른 감독기관을 둔 분리형 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 권한을 분리시켜 1992년에는 증권감독관리 위원회가, 1998년에는 보험감독관리 위원회가, 2003년에는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시장의 '워치독(watch dog)' 역할을 수행
- (금융 규제 전망) 2006년 현재 중국의 금융 규제 강도는 인접국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2010년 경에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제한, 채널통제, 진입장벽 및 외환제도와 같은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며, 조직형태와 상품인가는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특히 금융상품의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로 금융시스템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며,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 완화로 경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및 주요 국가의 금융규제 비교 >

국가	가격제한	채널통제	진입장벽	조직형태	외환제도	상품인가
중국	4	2	3	2	3	2
중국(2010)	2	1	1	2	2	2
미국	0	0	0	0	0	2
영국	0	0	4	0	0	1
말레이시아	2	2	3	1	1	3
필리핀	0	3	2	1	0	3

자료 : 취창, 『중국 금융제도, 금융거래 현황과 전망』, 2006, 재인용.

주 : 0에서 4로 가면서 규제의 강도가 높음.

3. 차리아(Chirea) 시대의 대응과제

- (차리아 시대의 한중 관계)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단계'로 발전해야 함
- (한중 FTA 본격 추진) 대중 수출증가율이 둔화하고 중국시장에서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중국 시장 선점효과와 함께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임
 - 한중 FTA는 현재 산관학 공동 연구 4차 협의가 종료되고 마지막 5차 협의만을 남겨놓은 상태로 협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가 절실
 - 단, 중국 산업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농수산업 부문의 피해를 고려한 협상전략 마련이 중요
- (한중 과학기술 협력 강화) 중국의 우수한 기초 과학기술과 우리나라의 IT, 응용기술을 융합하는 한중 과학기술 연대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수행
 - 중국은 수소와 핵폭탄, 인공위성을 개발할 정도로 탄탄한 기초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응용기술과 결합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임
 - 한중 과학기술 연대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미국 및 유럽연합에 맞설 수 있는 효과도 큼
- (한중 금융협력 기반 구축)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역내 경제·금융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최근 상황에서 양국간 금융협력 기반 확대가 필요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 중앙은행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내 금융인프라 구축 등 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미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확대를 위해 양국간 금융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장 절차 간소화 등의 협력이 필요함
- (한중 인적교류 확대)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인적교류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출입국 등의 각종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양국 간 교육교류가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 이수를 상호 인정하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행정제도 정비가 필요
 - 또한 근로교육 확대를 위해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자기간 연장 등, 양국 상호간 최혜국 수준에 준하는 인적교류 장려책을 마련
- **(환경문제 공동 대응체제 확립)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유발된 환경 문제는 중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막대한 해가 되고 있어 공동대응이 필요**
- 중국의 사막화로 인한 황사로 한국이 입는 피해는 약 7조 원으로 추산되며, 서해 해양오염, 산성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 절실
 - 현재 운영 중인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와 '환경장관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중 환경문제 공동연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 노력 확대) 에너지 자원 확보는 양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에너지 개발부터 소비까지 외교적 단일체를 추진**
- 중국 내 에너지 자원 인프라와 유통채널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에너지 자원 탐사, 가공, 운송, 유통에서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중국과 협력
 - 한국은 해외자원 확보 과정에서 중국과의 충돌은 피하되, 공동 펀드를 조성하거나 컨소시엄 형태를 취해 자원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 **(동북아 평화경제 체제 구축) 가칭 '한중일 공동개발은행' 등을 설립하여 동북아 개발을 촉진시키고, 북핵문제의 공동대처 등 평화경제 체제를 구축**
-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대응하고 지역적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하여 '한중일은 공동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중일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 위원회'등의 구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HRI**

□ 작	성	: 이 주 량 연구 위원 (3669-4334, jryanglee@hri.co.kr)
		이 만 용 연구 위원 (3669-4134, danieli@hri.co.kr)
□ 총	괄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부록】

< 현지 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한 외국계 은행 >

(2007년 말 현재)

	은행	국적	법인등록지	법인 설립 시점
1	HSBC	영국	상해	'07. 04
2	Standard Chartered	영국	상해	'07. 04
3	BEA	홍콩	상해	'07. 04
4	Citi Bank	미국	상해	'07. 04
5	Hangseng Bank	홍콩	상해	'07. 05
6	DBS	싱가폴	상해	'07. 05
7	Mizuho	일본	상해	'07. 06
8	Mitsubishi	일본	상해	'07. 07
9	ABNAMro	네덜란드	상해	'07. 07
10	Overseas-Chinese Bank	싱가폴	상해	'07. 08
11	JP Morgan	미국	북경	'07. 10
12	Hana Bank	한국	북경	준비 중
13	Shinhan Bank	한국	북경	준비 중
14	Woori Bank	한국	북경	'07. 11
15	Deutsche Bank	독일	북경	준비 중
16	Societe Generale	프랑스	북경	준비 중
17	Wing Hang Bank	마카오	심천	'07. 06

자료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외자은행 현지법인 통계.